

'팔아요, 사세요' 수업 감동

전남교육청, 수업 나눔 장터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지난 9-5일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35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업 나눔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350여개의 수업 나눔 동아리의 전남 교사 수업 나눔 대장경 선연식에 이어 권역별 연수와 각 학교에서 시행한 수업 나눔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3일 수업선도교사의 날에서는 박노현 전,

서술시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한 경의에 이어 교실수업개선 선도학교를 운영한 화순오성초, 곡성중의 수업 나눔 사례, 내년 수업선도교사의 수업 나눔 역할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4일부터 실시된 수업 나눔의 날에는 정영진 전, 전남교육감이 '보통학교 수업력 평가'라는 강의를 통해 보기에 기반한 수업 전개로 학생 배움중심 수업을 강조했다.

수업 나눔 코너에서는 원문정심 하브루

타, 거꾸로 수업, 배움의 공동체, 아이누로 수업하기, 서투르, 수업의 기본 등을 주제로 수업 나눔을 가졌다. 또 우수학교 동아리 코너에서는 동아리 운영에 대한 고민과 우수사례를 나눴다.

특히 그동안 수업 나눔 대장경에 적극 참여한 현장지원단과 동아리 회원이 술길을 걸으면서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는 수업 나눔 쓰담쓰담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올 한해 수업 나눔을 통해 수업 기법 위주의 수업협의회에서 탈피하고, 수업 공유, 생활, 학생 배움 중심의 관점에서 수업 나눔을 진행해 교사의 호응을 얻었다. 또, 교사 자발성에 근거한 수업 나눔 활동이 기반이 된 수업선도교사, 전남수업우수교사, 좋은 수업실적 등 의 실시로 교사는 수업역량이 강화되고 학생은 미래핵심역량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 나눔 장터에 참석한 김민자 수석교사(화순만연초)는 "수업 나눔으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수석교사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교사 수업 전문가로 존중 받아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전용 정책기획관은 "자발성에 근거한 전남 교사 수업 나눔 대장경 사업은 전남의 교실수업개선의 큰 밑거름이다"며 "자발적으로 수업에 나누고 공동 수업을 더해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재 기자 jmo@



값진 땀방울 흘리며 한계 극복하는 모습

나주노안초, 전교생 도전활동 실시

전라남도 나주 노안초등학교(교장 기효현)는 11월 3-14일 1학년부 6학년 학생들(61명)이 도전활동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노안초등학교가 무지개학교 특색교육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3일 4학년 학생들이 빛가람 진관대야 호수공원을 5바퀴, 총 20km거리를 인라인 스케이트로 도전을 성공했다. 그동안 연습해 온 기술과 길러온 체력을 바탕으로 무사히

성공할 수 있었다. 5학년은 자전거를 타고 죽산보와 느리크 전망대까지 가서 다시 학교에 돌아오는 코스로 왕복 80km를 달렸다. 연습해 온 거리보다 배가 되는 거리였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4일 1-3학년 학생들은 한수제에서 낙타봉을 지나 생대공원까지 걸었다. 중간에 팔각정에 올라가 나주 시내를 한눈에 보며 노안초를 찾기도 했다. 6학년은 9시부터 5시까지 일정을 계획하여 이슬촌에서 한수제까지 피바 걸었다. 체력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도전활동에 임했다. 계획부터 실제 도

전활동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솔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하여 학생들에게 힘을 북돋웠다.

이번 도전활동을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은 1학기 때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 5학년 학생은 1학기 초에는 자전거를 탈 수도 없는 초보자였다. 하지만, 도전 활동을 위한 끊임없는 연습으로 자전거를 능수능란하게 탈 수 있고 도전활동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시간 동안 흘린 땀물과 맑은 이번 11월에 와서 학생들에게 금보다 더 값진 기억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도전활동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끝없는 깨달음과 도전이다.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도전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대영 기자 idy@



풍성한 가을 결실로 행복한 큰잔치

전남교육청, 제13회 전남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발표회

전남 영재학생들의 행복한 영재교육 큰잔치가 지난 5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재)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700여명씩 1박2일, 총 3회에 걸쳐 화순호리조트에서 도내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학생 2200여명, 지도교사 200여명,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13회 전남영재교육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자연과학·발명·인문·정보·예술 등의 영재교육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영재학급까지 모두 참여해 탐구하는 과정을 즐기는 축제의 분위기로 이루어져 나눔과 소통의 탐구를 문명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진도, 보성에출연영재원 학생들이 이어오나사, 운담동경 등의 곡을 창작해 해금으로 선보이며 시작을 알렸다.

이어 포스터 발표 및 구구발표, 창의성 경진대회, 창의-융합 Water 페스티벌, 과학 Talk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창의-융합 인재들의 역할을 마음껏 펼쳤다.

포스터발표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연구한 신안영재교육원 온도수사대 팀의 'Save The Penguin'의 408팀의 학생들이 팀별로 연구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탐구하는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을 살펴보고 좋은 점, 부족한 점, 발전시킬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 영재교육원 학년별 대표들이 프리젠테이션으로 발표하는 구구발표는 총 104팀 중 평균점 80여곳의 ph를 조사한 김진영

재교육원 ECO팀의 '천연지시약으로 만드는 감진 ph지도'의 23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거뒀다.

프래젠테이션 후 학생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하며 진지한 토론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 전남교육의 미래전망을 밝게 했다. 또한 영재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에게 영재교육 정보공유의 장과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창의성 교육과 영재학생의 진로 지도'를 주제로 전남과학고 김일 교장과 김순교 교장의 학부모 특강 등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나주영재교육원 흥주원 학생 학부모는 "직접 와서 우리 자녀가 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더 대단하고 뿌듯하다. 아이의 진로 결정은 아직 멀다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특강을 들어보니 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부모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와 관심을 표현했다.

김재인 교육국장, 목포(박선미) 담당(공영규), 곡성(박찬주) 교육장 및 각급 교육교장, 교감 등이 방명하여 지역 학생들을 격려하며 학생들과 함께 질문과 토론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준석 미래인재과장은 "호기심과 주변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함께 토론하고 탐구하는 과정은 소중한 의미있는 경험"이라며 "전남 영재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창의적 산출물 발표회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재 기자 jmo@

보성북내초, 제2회 북부이동 청소년축제 개최

전남 보성 북내초등학교(교장 정기숙)는 지난 11월 3일 보성군 북부 3개면(율어초, 결백초, 보성초) 학생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 축제(학예회)를 실시했다.

북내초등학교에서는 학습의 연장으로 각자가 지닌 소질을 개발하고 기쁨을 연마하는 기회를 살기 위해 전교생이 1종목 이상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 의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종목 보다는 단체종목을 우선선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사 및 학부모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학부모 참여를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통해 학생들은 심미적 정서 순화와 명랑한 심성을 기질 수 있었으며 창의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청소년 문화 축제(학예회)를 주관한 북내초 학생용 교사는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며 앞으로 이동 청소년 문화축제가 학생들의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북내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청소년 문화 축제(학예회)를 위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여 자신의 표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영 기자 kjo@

목포교육지원청, 진로페스티벌 개최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은 3일 목포내삼대중에서 관내 중학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진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진로 페스티벌은 진로체험 및 탐색을 통해 진로 설계를 돕고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역량과 끼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전남예고에 한 국무용팀의 난타과포연수를 시작으로 뮤지컬, 댄스, 우쿨렐레 연주 등의 축하 공연과 22개 부스에서 드론, 예코백, 합창선 만들기, 버니스타, 사지 인화 등의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특성화고 및 특목고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중학교 홍보관과 전남예고에 전시관을 만들어 즉석에서 맞춤형 진로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진로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진로실용교육에서는 진로 탐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목포유림중 학생은 "진로 페스티벌을 통해 평소 소망이 있었지만 체험을 할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홍4번 기자 hst@

나주공공도서관, 조정래 작가 초청 학부모 특강

전라남도나주공공도서관(관장 이종범)은 4일 오후 한진KDN에서 나주 관내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정래 작가를 초청하여 '교육과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조정래 작가 초청 강연회는 2016년 학부모 특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작가의 장편소설 '풀꽃도 꽃이다'를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장편 교육과 교육 현안에 대해 즉석 토의를 진행했다. 강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래 작가는 40여년이 넘는 치열한 역사적식을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의 아픔을 함께하였으며 이번 작품 '풀꽃도 꽃이다'는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회투로 삼았다.

강연에서는 지식수업만 강조하고 1등만 우대하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OECD 국가 중 10대의 자살률 1등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다독이는 교육을 통해 성장보다는 인간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제안했다.

이대영 기자 idy@

(유) 하나로합정

방역 (학예회) / 건물 관리 / 자수료 협조
취업관리지원 (훈련/일부협조)
TEL : (06) 3224-5222 / H.P : 010-8888-3679

대동방역

TEL : (06) 3224-2931 / H.P : 010-8514-8006

영업종목

- 간이상수도청소
- 공간소독
- 무인자동살균

전남 환경문 협정용 영수입 198-1번지
FAX : (06) 323-0036
E-mail : hsb3222@hanmail.net

방역, 살균, 살충은 하나로방역!!!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기업